

‘식물의회’ 전략 광주시의회 새 임시의장 선임 법적 소송

주류파 새 임시의장 선출 강행...지방자치법 54조 놓고 해석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간의 주류파 톱과 감부싸움으로 제8대 광주시의회 가 사용된 ‘식물의회’로 전략한 가운데 소위 주류측 의원들이 “더 이상의 파행은 안된다”며 새 임시의장을 선출, 의장단 선출을 강행했다.

그러나 반대 측 의원들이 “정당성이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나서 의장단이 새로 선출되더라도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11시 전체 의원 28명이 전원 참석하는 가운데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전반기 의장 선출안건을 상정한 것을 시작으로 의회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시의회는 30분 남짓 릴레이 식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갖고 의장 선거를 진행할 새 임시의장으로 김용집(남구1) 의원을 선출했다.

의장 후보에서 사퇴한 뒤 최다선 최연장자 원칙에 따라 지난 이틀간 임시의장을 맡았던 반재신(북구1)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회권을 남발해 의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주류 측 의원들의 집단 반발과 새 임시의장 선출 강행에 따른 것이다.

김하실(광산8) 의원이 포문을 열

었고, 조석호(북구4), 김익주(광산1), 장재성(서구1) 의원이 가세했고, 유일한 야당의원인 정의당 장연주(비례) 의원도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총회장이 아니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새 임시의장 선출에 동의했다.

주류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 54조를 들어 새 임시의장 선출을 밀어붙였다.

지방자치법 54조에 따르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경우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 임시의장이 이를 연속 정회를 선언해 의장선거를 제때 실시하지 못해 파행으로 몰고간 것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게 주류 측 주장이다.

당초 3명이 출마했다가 2명이 중도 사퇴하면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민권 의장 선거를 지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임시의장은 의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의장’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새 의장이 비통을 이어받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비주류 측은 “원구성은 의장만 선출해서는 안된다.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교섭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54조 규정에서 임시의장 직무로 ‘의장선거만이 아닌’ 의장 등의 선거로 명시돼 있는 점도 법적 모호성을 키우고 있다.

결국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건건이 처리할지, 패키지로 선(先) 합의한 뒤 투표를 진행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이 때문에 지난 이틀간 파행이 지속됐다.

본질적으로는 주류 측이 의장을 차지하는 대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일부를 양보하라는 비주류측 요구가 충돌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악재를 딛고 의장단을 선출하더라도 불씨는 남는다.

비주류 측이 “힘의 논리에 따른 날치기”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내부 분열과 후유증이 클 수 있다.



현판 만지는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구 당사에서 현판을 떼어낸 후 현판을 만지고 있다.

박지원·천정배, 최경환 평화당 당권도전 공개지원

박지원·천정배 등 민주평화당 중진 의원이 11일 차기 당권주자 도전을 공식화한 최경환 의원을 공개지원하고 나섰다.

천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최 의원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각 최 의원의 선거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자처하기까지 했다.

천 의원은 최 의원을 새로운 호남 리더로 키우겠다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3년 전부터 뉴 DJ(김대중 전 대통령) 키워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 최 의원은 뉴 DJ가 되기에 적합한 초선의원 중 한 명”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최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는 초선이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정치력과 경력은 저 정도 된다. 그런 점에서 초선의 새로움과 많은 정치적 경험, 역량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평화당의 내일, 광주와 호남의 큰 희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당 대표에 꼭 취임시켜야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 의원은 사회에 나와서 계속 민주주의 투쟁을 해왔다. 특히 광주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후 4년 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참석하며 광주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탄했다”며 “의원활동도 성실히 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촛불혁명 후 정치권의 많은 변화에 앞장설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의원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평화당의 조기 전당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최경환(가운데) 의원이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천정배 의원, 오른쪽은 박지원 의원.

천 “뉴DJ 적합...산전수전 다 겪어 경험·역량 겸비”
 박 “촛불혁명 후 정치권 변화 앞장설 수 있는 의원”
 천·박, 최 의원 선거대책위원장·부위원장도 자처

대회 방침이 정해졌을 때부터 ‘세로운 인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최 의원 출마선언 회견에 박 의원이 동행함으로써 최 의원은 자천타천 평화당을 이끌 새로운 인물 타이틀을 선점하게 됐다.

평화당 차기 당권 도전을 직접 간접적으로 밝힌 의원은 최 의원을 비롯해 유성엽·이용주·정동영 의원 등이다. 유성엽 의원은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의사를 드러낸 바 있으며 정동영 의원은 오는 14일 광주에서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이용주, 평화당 당대표 불출마... “정치적 역량 부족”

“평당원으로서 헌신하는 것이 당 미래에 도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내달 5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제가 당 대표 선거에 나서기에는 정치적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당을 위해 평당원으로서 헌신하는 것이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지난 지방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때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한 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잘못임을 후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차기 당 지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외부 인재들의 영입을 통해 당의 지속가능성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의 중심이 아닌 당원과 국민의 시각에서 선거제도 및 정계 개편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호남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정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위기의 당을 살릴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는 당원 여러분의 몫”이라

고 말했다.

이어 “민주평화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 여러분”이라며 “단합된 힘으로 평화당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평당원으로서 굳건히 당을 지키고 개혁 선봉에 앞장서겠다”며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문지기 역할도 마다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Together 광산구